

제2외국어 SNULT의 언어문화 요소 분석

- 중국어, 프랑스어의 청해시험을 중심으로

손남호¹ · 고길수^{2*}

¹서울대학교, ²서울대학교

Linguistic Cultures in SNULT for Second Foreign Languages: The Case of SNULT Chinese and SNULT French Listening Comprehension Sections

Nam-Ho Sohn¹ and Kilsoo Ko^{2*}

¹Seoul National University, ²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goal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oncept of linguistic cultures (LCs) is integrated and utilized in the content of test items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s (SNULT). In this study, LCs were subdivided into three types: (a) language-internal, (b) sociolinguistic, and (c) pragmatic LCs. A total of 160 listening items were chosen from SNULT Chinese and SNULT French tests (80 from each) and then analyzed according to the tripartite, classification scheme of LCs. Results of analyses have revealed that one or more types of LCs were identified in about 61% of 80 items for dialog-based listening comprehension sections of SNULT Chinese and SNULT French, respective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LCs are largely reflected in SNULT and that these tests can provide appropriate test construction models for assessing communicative competence.

Keywords: SNULT, linguistic culture (LC), language-internal LC, sociolinguistic LC, pragmatic LC

* 이 논문은 제1저자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50117).

** 이 논문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한다. 또한 우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TEPS센터 이용원 소장님과 언어능력측정센터 이성현 소장님, 강미란 선생님, 김엘레나 선생님, 문성주 선생님, 박혜영 실장님, 송홍령 선생님, 코마츠 요시타카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모두 필자의 몫임을 밝힌다.

† Corresponding author: kilsooko@yahoo.com



1. 서 론

이 논문은 외국어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언어문화(Linguistic Culture, 이하 LC)¹⁾ 요소가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언어문화를 설정한 이유는 언어문화가 한 언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고유한 언어 표현법이고 외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 의사소통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언어문화는, 다른 언어에서 통용되지 않아 적어도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번역될 수 없는 언어 표현법이다. 따라서 언어문화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바로 이해되지 않고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익혀야 하는 것이다. 언어문화를 모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형식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는 외국어 능력 측정 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언어문화는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 또는 외국인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과 관련하여 일부 논의되었을 뿐,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시험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논문은 언어문화의 분석을 위한 외국어 시험으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출제하는 제2외국어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이하 SNULT)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이 동일한 기준과 형식으로 여러 제2외국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²⁾ SNULT는 기출 문제가 모두 공개되는 시험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SNULT 기출문제집이 출판되어 시험의 내용과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SNULT는 1967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외교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시험으로 시행되어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는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취업과 해외파견을 위한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018, p. 8).

그러나 SNULT를 분석한 연구는 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시험의 형식과 내용 등 질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물론,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계량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소개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SNULT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 3장에서 논의할 언어문화의 분석틀로 SNULT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언어문화가 SNULT 문항에 어떻게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국어와 프랑스어에 대한 SNULT 청해시험이다. 분

1) 언어문화의 개념과 세부 요소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2) 제2외국어 SNULT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고 TEPS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외국어능력 평가 시험으로 현재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시험은 청해와 독해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문제 유형과 내용으로 총 100문항이 출제되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Park and Kang(2019) 참조.

석 대상 SNULT 청해시험 자료는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SNULT 기출문제집 『SNULT 중국어 vol. 2』(이하 『SNULT 중국어』)³⁾와 『SNULT 프랑스어 vol. 2』(이하 『SNULT 프랑스어』)⁴⁾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이다.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 문제를 활용한 이유는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구조나 문법이 우리말과 많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낯선 어법이나 표현 형식이 많이 쓰이고 이에서 기인하는 언어문화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는 우리와 인접한 국가의 언어인 반면, 프랑스어는 근대 이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다른 문화권의 언어이어서 역사·문화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언어를 함께 분석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아주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다.

논문은 이어지는 2장에서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의 언어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언어문화를 정의하고 언어문화의 세부 구성 요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4장에서는 논문의 분석 자료와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5장에서는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서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언어문화가 반영된 문항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2.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항목으로서 언어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

1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된 언어문화는 수능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을 분석한 논문에서 일부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SNULT와 같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언어문화라는 개념은 사실 아주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에 둘 수 있다. 이전까지 외국어는 정보 교환을 위한 도구였다. 즉,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외국어로 표현하고 외국어로 표현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외국어는 정확한 발음이나 표현, 문법 지식 등 순수한 언어지식으로 한정되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목표와 목적이었다.

현재의 외국어 교육은 사회 활동이자 사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사소통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사회 활동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따라 일정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사소통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따라 수행되는 언어 사용 행위가 되고, 외국어는 곧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언어지식으로 확장된다(Council of Europe, 2001, pp. 9-10).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비로소 언어문화 개념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3)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018). *SNULT Chinese Vol. 2*,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4)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in appear). *SNULT French Vol. 2*,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러한 언어문화는 주로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언어문화 개념이 새로이 제기된 만큼 이를 규정하고 구체화하여 외국어 교육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Kwon(2003)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전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Moon(2016), Kim(2012), Song(2015), Kim(2012)은 각각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교육에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Kim, (2003), Cho(2004) 등 여러 연구가 발표된다.

반면 외국어 평가 시험과 관련해서 언어문화를 다룬 연구는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그마저도 수능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시험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시도된 바가 없다. Kim(2011)이 유일하다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Byram(2009)의 “상호문화 접촉 경험의 자기 기록(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을 적용한 독일어의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Kim(2011)은 ‘일상대화’가 외국어교수·학습의 소박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면서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사회적 언어행동의 한 형태임이 분명해졌으며 대화·담화능력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한 요소로 인식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Kim, 2011, p.8). 수능과 관련한 연구로는 Lee(2013)과 Cho(2013)이 있는데, 각각 독일어와 스페인어 수능 시험의 문화 관련 문항을 분석한다. 한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Kim(2007)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나타나는 언어문화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면, Han(2008)는 말하기 시험에서의 문화 능력 평가를, Han(2008)는 초급 단계 학습자의 문화 능력 평가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언어문화를 여러 층위의 다양한 세부요소들로 나누고 있다. Kim, (2007)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에서 평가되어야 할 언어문화로 어휘(단어 자체, 어휘 체계), 표현(명명과 호칭, 비유와 상징, 관용표현, 상투어, 명언·명구), 화용(높임법, 간접화, 완곡어법, 방언, 수사적 표현), 비언어·반언어적 요소(성량과 속도, 시선, 표정과 몸짓, 거리 유지), 스크립트(인사, 사과, 질문, 부탁, 거절, 소개, 초대), 언어 생활(학교생활, 직장생활, 물건사기, 관광, 교통, 숙박시설이용 등), 언어 예술(문학과 유사 문학), 언어 예절(발화와 침묵, 역할 교대, 어조와 태도), 언어 의식(규범 의식, 고유어, 외래어) 등을 제시한다. Lee(2004, p. 148)는 언어 중심의 교육에 문화가 통합되면 언어에 함축된 문화(어휘에 함축된 문화적인 정보, 문법이나 표현의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 관용표현, 속담의 의미 등)와 언어 사용 문화(언어 사용 예절, 언어 사용 상황, 언어 사용 방법 등)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문화 요소’라고 지적한다. 한편 Han(2008)에 따르면 Bachman (1990)은 언어능력의 구성 요소로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을 들었다. 조직적 능력은 언어의 형태를 이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는 모든 규칙과 체계를 말하고, 화용적 능력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으로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발화수반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공손성, 격식성, 은유, 언어사용역, 문화와 관련된 언어 양상을 말하는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말한다(Han, 2008, p. 86).

3. 언어문화의 개념과 세부 요소

3.1. 언어문화의 개념

언어문화를 정의하기에 앞서 우선 지적할 것은 언어문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와는 다른 것이고 따라서 이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Kim(2007)은 한국어교육과 문화 능력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면서 명확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의 논의와 인용에 따르면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 양식의 총체’로 정의된다(Kim, 2007, p. 3). 즉, 문화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문화의 상위 개념인 셈이다. 그러나 언어 교육을 다루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 보통은 문화와 언어문화를 분명하게 나누어 기술하고 있지 않거나, 생활 문화, 전통 문화 등 언어에 한정되지 않는 좀 더 큰 범위의 문화를 강조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논문은 언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화 요소는 배제하고 논의의 중심인 언어문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즉, 한 언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고유한 언어 표현법이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다.

언어문화는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과 범위가 다른데 이 논문에서 따르고자 하는 관점은 ‘언어활동의 기반인 동시에 언어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일체의 언어적 앎과 행동의 체제’(Kim, 2007, pp. 4-5)이다. 즉, ‘언어에 담긴 문화나 언어로 표현·전달되는 문화가 아니라 언어 표현·전달 자체의 문화이다’(Kim, 2007, pp. 84-85). 예를 들면 중국어나 프랑스어로 중국이나 프랑스의 사회, 전통을 묘사하는 것은 언어의 문화적 요소로는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언어문화가 아니며 중국어나 프랑스어의 감사 표현과 이에 따르는 겸양 표현, 또는 중국이나 프랑스 등 각 국가나 민족의 문화와 언어 규범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관용어, 응답 요령, 대화 주제의 전개 방식 등이 이 논문에서 다루는 언어문화의 기술 대상이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상의 언어문화 정의가 적용될 것이다. 즉, 지리적인 위치나 특정 전통 문물의 역사적 가치 등을 묻는 문항은 넓은 범주의 문화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NULT 프랑스어』를 보면 *Vous venez de quel pays ?*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의 질문에 이어지는 *Et de quelle ville ?*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요?’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는데, 파리를 비롯하여 로마, 런던, 베를린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적 지식이 아닌 백과사전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어 능력 시험에서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언어문화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아니라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있는 언어문화이다. 다만 이 문항에서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라는 사실은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평가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⁵⁾

어떤 문항이 언어문화 능력을 평가하는지 일반문화 능력을 평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

5) 『SNULT 중국어』에서도 *Jingli rang wo mingtian chuchai* ‘사장님이 나한테 내일 출장 가라고 하시네’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Shanghai haishi Guangzhou?* ‘상하이야 광저우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문항 역시 『SNULT 프랑스어』 문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로 번역해도 원래의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Kim, 2007, p. 15). 즉, 언어문화의 평가 대상은 관용 표현과 같이 언어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문항을 통해서이고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이 진짜 원어민의 언어문화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2. 언어문화의 세부 요소

이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이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의 설명을 참조하여 언어문화를 ‘언어내적 언어문화(language-internal LC)’, ‘사회언어적 언어문화(sociolinguistic LC)’, ‘화용적 언어문화(pragmatic LC)’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반문화’를 따로 분류하였다. 논문이 참조한 분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CEFR은 2001년 발표된 이래 현재 외국어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참고되는 명실공히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EFR은 의사소통능력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Council of Europe, 2001, pp. 108-130). 첫째는 언어 차원의 능력(linguistic competences)으로 여기에는 어휘나 문법, 의미, 발음 능력 등이 속한다. 둘째는 사회언어 차원의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s)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표지와, 겸양 표현을 비롯하여 화계(register)나 방언 등과 관련된 능력으로 구성된다. 셋째는 약속, 명령 등과 같은 발화수반행위나 효과적인 논리 전개 등을 포괄하는 화용 차원의 능력(pragmatic competences)이다. 그런데 CEFR은 ‘다중언어적이며 다문화화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외국어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 즉,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Song, 2016, pp. 4-5). 다시 말해서 CEFR이 말하는 의사소통능력과 그것의 세부 요소들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언어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고 표현되는 언어문화인 것이다.

이 논문이 설정한 언어문화 각 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내적 언어문화’는 주로 단어, 구, 문장 등이 가지는 언어별 의미 영역 또는 결합 구조가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와 연관되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 구에서 해당 언어의 문화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언어내적 언어문화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 (1)은 나이를 비교하는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표현으로 세 언어 간 차이가 잘 드러나는 예이다.

(1) (한국어)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적어.

(중국어) *Wo bi ni da/xiao.*

(프랑스어) *Je suis plus/moins âgé que toi.*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어에서 나이는 흔히 ‘많다/적다’라는 양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크다/작다’와 같이 물체의 크기를 가리키는 단어 *da/xiao*로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프랑스어에서는 ‘나이가 든’이라는 뜻의 단어 *âgé* 앞에 양이 더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plus/moins*’을 덧붙인 이른바 비교급 표현이 사용된다. 어휘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세 언어에는 ‘많다/적다’, ‘크다/작다’, ‘나이가 들다’와 같은 표현들이 모두 빠짐없이 존재하지만, 나이와 관련해서는 세 언어에서 서로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언어내적 언어문화’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언어내적 언어문화에는 넓은 의미로 외국어의 대부분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단어, 구, 문장이 가지는 의미 영역과 결합 구조가 엄밀하게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언어내적 언어문화를 좀 더 좁은 의미로 정의하여 동일 의미를 나타내는데 언어 간 유사한 의미의 어휘, 구,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단어와 다른 구조의 문장으로 해당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둘째, ‘사회언어적 언어문화’는 화자-청자 간의 관계, 발화 상황의 성격, 대화자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유형은 대화자 간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의 호칭과 공손/겸양 표현, 구어/문어, 표준어/지역어, 공식/비공식적 표현, 속담/격언 등 사회·문화적인 믿음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표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공손법, 겸양 표현, 격식성, 방언/계층차이 등의 언어표현법에 나타나는 언어문화를 의미한다.

이 중 호칭과 공손/겸양 표현 등 요소는 대화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에 자주 나타난다. 중국어에서 *nin*(您)은 존칭의 2인칭 대명사로 손님 또는 연장자 등에게 사용하는 공손 표현이다. 즉, 대화자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언어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는 *tutoyer* ‘(친숙한 표현인) *tu*를 사용하여 말하다’, *vouvoyer* ‘(공손한 표현인) *vous*를 사용하여 말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대화자가 서로를 *tu* ‘너’와 *vous* ‘당신’로 달리하여 지칭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성이나 각각 남녀에 대한 존칭을 나타내는 *monsieur*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선생님’, *madame*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부인’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유사한 사회언어적 의미의 언어 간 다른 언어 표현을 사회언어적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화용적 언어문화’는 발화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거나 선언, 약속, 거절, 제안 등 사회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언어 표현법을 의미한다. 화용적 언어문화 표현에는 각 상황이나 문맥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언어 표현들이 있다. 예컨대 일상 생활에서 나누는 인사말이나 감사 및 유감 표현, 상점에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값을 묻는 말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언어문화 요소들은 언어 표현으로 발화 의도를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대화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Zai zuo huir ba* ‘좀 더 앉아 있지 그러세요’라는 제안에 *Bu le, gaitian zai lai ba* ‘아니에요. 나중에 또 올게요’의 대답처럼 겸양 표현과 거절 표현이 드러난 답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손하고 완곡한 거절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화용적 언어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프랑스어에서도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si* ‘~한다면’과 반과거 시제의 문장이 결합한 형식이 제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i on allait au cinéma ?* ‘영화 보러 갈까?’와 같은 경우 인테 제안이라는 화용적 언어문화가 나타난 문장이다.

‘일반문화’는 지금까지 기술한 언어문화의 세 요소와는 다르다. 일반문화는 표현에 따라 언어문화적 요소가 다소 드러나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의 관습

또는 규칙이 드러난 것인데 주로 앞에서 기술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연관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라는 지식은 언어적, 언어문화적 지식이라기 보다는 백과사전적 지식이다. 여러 언어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역사, 지리, 예술, 규범, 관습, 제도 등과 같이 광범위한 문화 현상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3.1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근거하여 언어문화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일반문화’로 분류하여 다룬다. 즉, 논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문화 요소는 ‘언어와 관련된 언어문화로서 언어 자체에 내재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는 ‘일반문화’가 아닌 언어와 연관된 문화 현상의 평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논문은 ‘언어활동에 꼭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의 문화’를 ‘언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와 구별하여(Kim, 2003, p. 161) 분석한다.

한편 언어문화의 여러 요소는 한 영역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5장에서 기술할 SNULT 기출문제집 문항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문항을 특정 영역 한 곳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분석의 관점에 따라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4. 분석 자료와 방법

SNULT의 청해시험은 아래 표 1과 같이 전체 50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는 표 1의 SNULT 청해 문항이 각각 2세트, 총 100문항이 제시되고 있다(Park and Kang 2019;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018, p. 11). 이 중 답화문을 듣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20문항을 제외한 80문항이 모두 대화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인데, 논문은 이러한 대화문 기반 문항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을 대화문 기반 청해 문제로 한정한 것은 대화문에 사용된 구어가 발화 상황이나 발화 의도 등 서로 다른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관여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언어 요소들이 고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대화 부분이 논문에서 분석할 언어 내적, 사회언어적, 화용적 언어문화 및 일반문화 등 분류 요소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 1. SNULT 청해 문항의 구성

청해 영역	문제유형	문항수
Part I	한 문장을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문항
Part II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문항
Part III	긴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문항
Part IV	답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문항

논문은 『SNULT 중국어』에서 80문항, 『SNULT 프랑스어』에서 80문항을 각각 분석 대

상으로 삼아 언어별, 문항별로 언어문화를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들 문항에서 해당 언어의 언어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문항을 분류하여 그 내용과 분포를 분석하면서 언어문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별 청해 문항에 대하여 논문의 저자가 본인 전공 언어의 언어문화 요소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사된 언어문화 요소가 타당한 지를 저자 상호 간 교차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차 검토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최종 논의를 거쳐 각 언어별 청해 문항의 언어문화 요소를 확정하였다.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2외국어 SNULT⁶⁾에서 언어문화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평가하고 있는지를 다음 5장의 분석에 제시하였다.

5. SNULT 문항의 언어문화 요소 분석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의 문항에 드러나 있는 언어문화 요소는 다양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언어문화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고 한국어와 평가 대상 외국어의 언어적 차이만 드러난 문항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휘의 의미 영역, 구의 구성, 문장의 형식 등 모든 언어적 측면이 한국어와 일치하는 문항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어는 문화의 일부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넓게 보면 거의 모든 문항에 언어문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문화적 분석과 언어적 분석의 어느 한쪽으로도 명시적인 기술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 명시적으로 언어문화적 요소가 드러난 문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는 출제자들이 출제한 외국어 문항과 함께 출제자들이 번역하고 설명한 한국어 번역문과 설명문이 같이 실려 있으므로 번역과 해당 설명문에서 언어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문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언어의 여러 층위에서 언어문화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의 청해 영역에서 추출한 언어별 80개의 문항 중에서 언어문화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것을 예시하였다. 우선 3장에서 논의한 분류 체계, 즉 언어내적 언어문화,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화용적 언어문화를 기준으로 해당 문항을 제시하면서 4장에 제시된 분석 자료와 방법으로 각 문항의 가지는 언어문화 요소를 기술하였다.

5.1. 언어내적 언어문화 문항

언어내적 언어문화 문항은 주로 단어, 구, 문장 등이 가지는 언어별 의미 영역 또는 결합 구조가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와 연관되어 다르게 나타나는 문항을 말한다. 청해 영역 대화 부분

6) 이 논문은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 수록된 문제를 분석한 것으로, 논문의 논의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에 대한 SNULT를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총 80문항 중 『SNULT 중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8문항 있었고, 『SNULT 프랑스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16문항 있었다.⁷⁾ 각 언어의 대표 문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 男: 你多大了? 남: 너 나이가 어떻게 돼?
 女: _____. 여: _____.

- | | |
|---------|-------------|
| (a) 一米八 | (a) 180센티미터 |
| (b) 两块五 | (b) 2.5위안 |
| (c) 十二了 | (c) 12살 됐어 |
| (d) 八十斤 | (d) 40킬로그램 |

중국어 형용사 *da*(大) ‘크다’는 사물의 크기를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2)에서처럼 의문부사 *duo*(多) ‘얼마나’와 결합하는 의문문에서 *da*가 ‘나이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언어내적 언어문화를 지니는 경우이다. *da*의 의미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나이를 묻는 문장의 표현도 (2)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에서처럼 달라진다. 즉, 언어내적으로 나이의 많고 적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는 언어내적 언어문화로 분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3) H: Vous faites quoi dans la vie? 남: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F: _____. 여: _____.

- | | |
|--|---------------------------|
| (a) Je pense que c'est facile. | (a)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
| (b) Je veux bien le faire, moi aussi. | (b) 저도 역시 그것을 하고 싶어요. |
| (c) J'enseigne le français au collège. | (c) 저는 중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칩니다. |
| (d) Je rêve de travailler dans une banque. | (d)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꿈꿉니다. |

프랑스어 동사 *faire*는 ‘만들다, 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3)에서처럼 *dans la vie* ‘삶에서’와 함께 쓰여서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된다. 이것 역시 언어내적으로 특정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로 언어내적 언어문화로 분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5.2.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문항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문항은 화자-청자 간의 관계, 발화 상황의 성격, 대화자의 사회·문화

7) 언어내적 언어문화 문항이 『SNULT 중국어』보다 『SNULT 프랑스어』에서 훨씬 많이 나타난 것은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의미 영역 또는 결합 구조 간 차이가 중국어와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현상은 유형론 및 언어문화적 차원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는 문항이다. 청해 영역 대화 부분 총 80문항 중 『SNULT 중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18문항이 있었고, 『SNULT 프랑스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15문항이 있었다. 각 언어의 대표 문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4) 女: 听说您曾经是全国少年蛙泳冠军?
 男: 好汉不提当年勇啊.
 女: 现在不游了?
 男: _____.
- 여: 예전에 전국 소년 평영 챔피언이었다면 서요?
 남: 다 지나간 일이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 지금은 수영 안 하세요?
 남: _____.

- (a) 开小差儿, 被炒了
 (b) 发福了, 游不动喽
 (c) 当年啊, 没什么建树
 (d) 你说蝶泳啊, 耗体力
- (a)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해고 당했어
 (b) 살이 찌서 수영이 힘들어
 (c) 그때 별 실적이 없었어
 (d) 접영이라면 체력 소모가 많죠

(4)에서 여자의 첫 번째 질문에 나타나 있는 중국어의 *nin*(您)은 손님 또는 연장자에게 사용하는 존칭을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이다. 나이 등 관계에 의한 ‘예의’라는 사회언어적 언어 문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남자의 첫 번째 대답에 나타나 있는 관용표현 *haohan bu ti dangnian yong a*(好汉不提当年勇啊)는 ‘다 지나간 일이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를 비유적으로 의미하지만 원래는 ‘사내대장부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남녀 가치관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사회언어적 언어문화를 드러낸다.

- (5) F: Je n'ai envie de rien, ce soir.
 H: Qu'est-ce que tu as ? Tu es fatiguée ?
 F: Oui. J'ai trop de travail en ce moment.
 H: Ma chérie, je vais préparer le dîner !
 F: Tu ferais vraiment ça ?
 H: Oui ! Je ne l'ai pas fait souvent depuis notre mariage.
- 여: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저녁은.
 남: 무슨 일이야? 피곤해?
 여: 맞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
 남: 여보, 저녁 내가 만들게!
 여: 정말로 그걸 하겠다고?
 남: 응! 결혼하고서는 자주 안 했잖아.

- Q. Qui sont les deux personnes qui parlent ?
 (a) Une enfant et son père.
 (b) Une fille et son frère.
 (c) Une femme et son mari.
 (d) Une jeune fille et son voisin.
- [질문]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 입니까?
 (a) 여자 아이와 그녀의 아버지.
 (b) 소녀와 그녀의 남자 형제.
 (c) 여자와 그녀의 남편.
 (d) 어린 소녀와 그녀의 이웃.

(7) F: Dis-moi, comment vas-tu ?

여: 이봐, 어떻게 지내니?

H: _____.

남: _____.

(a) Je vais prendre le métro.

(a) 나는 지하철 타러 가.

(b) Viens avec moi, j'y vais aussi.

(b)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거기 가.

(c) Très bien, mais un peu occupé.

(c) 아주 잘 지내, 하지만 조금 바빠.

(d) Ravi de faire votre connaissance.

(d)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뻐요.

(7)은 안부 표현으로 안부를 묻고 이에 답을 하는 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b)에서 명령문은 명령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뜻의 제안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동사 *aller* 도 ‘~에 가다’로 해석되어, 안부 표현으로 쓰일 때와 다르다. 또한 (d)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게다가 상대방을 *votre* ‘당신의’, 즉 *vous* ‘당신’로 지칭하고 있어, 여자의 물음에서 *tu* ‘너’가 쓰인 것과 대비된다.

(8) H: Si on allait au cinéma ?

남: 영화관에 갈까?

F: _____.

여: _____.

(a) Superman, je l'ai vu aussi.

(a) 슈퍼맨, 나도 그거 봤어.

(b) Deux places, s'il vous plaît.

(b) 두 자리요, 부탁드립니다.

(c) Pas le temps aujourd'hui, désolée.

(c) 오늘은 시간이 없어, 미안해.

(d) Ah le cinéma ! C'est par là, monsieur.

(d) 아 영화관이요! 저쪽입니다, 선생님.

이 문항에서 주목할 점은 제안이라는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독특한 표현법이다. 남자의 말에서 보듯이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si* ‘~한다면’와 반과거 시제의 문장이 결합한 형식이 사용된다. 이 형식은 본래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될 수 없는 것을 가정하는 표현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법 문장과 함께 쓰인다⁹⁾. 즉, 비현실 가정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제안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바가 현실이 아닌, 실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아주 불확실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답인 (c)를 보면 시간이 없음을 알리는 말과 유감을 뜻하는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는 거절이라는 화행 행위의 전형적인 언어 표현법에 해당한다. 또한 (b)의 ..., *s'il vous plaît*는 간단하게 물건을 주문하는 언어 형식이고, (d)의 *c'est par là*는 길을 묻는 물음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 중 하나이다.

9) 예를 들어 ‘내가 너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를 프랑스어로 바꾸면 *Si j'étais toi, je ne le rencontrerais pas*이다.

5.4. 일반문화 문항

일반문화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의 관습 또는 규칙이 드러난 것인데 주로 해당 문화권의 관습, 규칙과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과 연관된다. 청해 영역 대화 부분 총 80문항 중 『SNULT 중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항이 있었고, 『SNULT 프랑스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항이 있었다. 각 언어의 대표 문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9) 男: 我穿那件新买的毛衣去吧。 | 남: 나 새로 산 스웨터 입고 나갈게요. |
| 女: 不行, 不行! 得穿西服。 | 여: 안 돼요, 안 돼요! 양복을 입어야죠. |
| 男: 穿西服不舒服。 | 남: 양복 입으면 불편해요. |
| 女: 那也不行。去喝喜酒, 得讲究些。 | 여: 그래도 안 돼요. 결혼 축하주를 마시러 가니까 신경 좀 써야죠. |
| 男: 真是的! 哪儿来那么多规矩。 | 남: 나 원 참! 그런 많은 규칙은 다 어디서 나왔는지. |
| 女: 哎呀! 你怎么扎黑色的领带呀? 红的, 红的! | 여: 아이고! 당신 왜 검정색 넥타이를 매요? 빨간색, 빨간색! |

问: 他们要去哪儿? [질문]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 | | |
|-----------|------------------|
| (a) 去旅游 | (a) 여행을 가다 |
| (b) 去开会 | (b) 회의하러 가다 |
| (c) 去买衣服 | (c) 옷을 사러 가다 |
| (d) 去参加婚礼 | (d)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다 |

이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은 언어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일반문화적인 요소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에 ‘결혼축하주’를 의미하는 *xǐjiǔ*(喜酒)가 대화문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중국의 결혼식 참석과 관련된 일반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문화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문제로 분석될 수 있다.

- | | |
|---|--------------------------|
| (10) F: Tu es invité au baptême de Laurence ? | 여: 너 로랑스의 세례식에 초대 받았어? |
| H: Ben oui, comme toi. | 남: 으음 그래, 너처럼. |
| F: Alors il faudra aller à l'église, non ? | 여: 그러면 교회에 가야하는 거지, 그렇지? |
| H: Bien sûr, puisque c'est un baptême ! | 남: 물론이지, 세례식이니까! |
| F: Mais...c'est pas grave si on n'est pas croyant ? | 여: 근데, 신자가 아닌데 괜찮을까? |

H: Tu sais, c'est juste formel tout ça. 남: 알잖아, 그게 다 형식적이라는 걸.

Q. Pourquoi la femme est-elle inquiète ? [질문] 왜 여자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 | | |
|---|-------------------------|
| (a) Elle ne croit pas en Dieu. | (a) 그녀는 신을 믿지 않는다. |
| (b) Elle ne connaît pas Laurence. | (b) 그녀는 로랑스를 모른다. |
| (c) Elle n'est pas invitée au baptême. | (c) 그녀는 세례식에 초대받지 않았다. |
| (d) Elle pense que Laurence est malade. | (d) 그녀는 로랑스가 아프다고 생각한다. |

위의 문항에서 대화의 소재는 세례식에 참석하는데 신자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일반문화적 요소가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답을 선택하는데 일반문화적인 요소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능력을 평가하는데 일반문화 요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 언어권의 관습,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문항이다.

5.5. SNULT 문항의 언어문화 요소 반영률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는 언어내적, 사회언어적, 화용적 언어문화의 요소가 반영된 문항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평가 대상 언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또는 문화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어학 능력, 즉 언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항보다는 해당 언어권에 대한 일반문화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은 적었다. 아래 표 2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대상으로 청해 대화 이해 문제에 언어문화 요소가 분석 대상 80문항 중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산출한 것이다. 그 결과 『SNULT 중국어』는 전체 청해 문제 대비 61.3%, 『SNULT 프랑스어』 역시 61.3%로 나타나 그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언어문화 요소가 반영된 문항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문화 요소는 『SNULT 중국어』에서 4문항(5.0%), 『SNULT 프랑스어』에서 3문항(3.8%)이 출제되었다.¹⁰⁾

10) 3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어문화의 여러 요소는 한 영역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표 2의 수치는 언어문화 요소가 여러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났을 때, 출제 의도에 가장 연관이 있는 언어문화 요소를 계산한 것이다.

표 2.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 청해 문항의 언어문화 요소 반영률¹¹⁾

구분	『SNULT 중국어』 (반영률)	『SNULT 프랑스어』 (반영률)
언어내적 언어문화	8문항 (10.0%)	16문항 (20.0%)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18문항 (22.5%)	15문항 (18.8%)
화용적 언어문화	23문항 (28.8%)	18문항 (22.5%)
총계	49문항 (61.3%)	49문항 (61.3%)

6. 결 론

지금까지 외국어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언어문화의 개념과 체계를 기술하고, 언어문화가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에 평가 문항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논문은 언어로 표현·전달되는 문화가 아닌 언어 표현·전달 자체의 문화라는 언어문화의 개념 분석으로부터 언어내적 언어문화, 사회언어적 언어문화, 화용적 언어문화라는 세 가지 하위 분류를 추출하여 제2외국어 평가 시험의 하나인 SNULT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의 청해시험에서 대화 기반 평가 문항 각 80문항, 총 160문항 중 전체적으로 약 61%의 문항에서 언어문화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NULT의 평가 문항이 단순한 어휘 의미, 문법 지식 등을 묻는 것을 넘어 해당 언어권의 다양한 언어문화 현상을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즉, SNULT가 외국어의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부합하는 시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논문은 SNULT에 실제 출제된 문항의 언어문화 요소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을 위해서는 언어문화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평가 시험이 적절한 외국어 평가 시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제2외국어 SNULT 중 중국어와 프랑스어 청해 문항에 대하여 언어문화 요소의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어와 프랑스어 외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SNULT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외국어에도 논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외국어 시험을 논문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11) 반영률은 『SNULT 중국어』와 『SNULT 프랑스어』의 청해시험에서 대화 기반 평가 문항 각 80문항에 대한 비율이다.

References

- Byram, M. (2009). Evaluation and/or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A. Hu and M. Byram, (Eds.), *Interkulturelle Kompetenz und fremdsprachliches Lernen: Modelle, Empirie, Evaluation*, 215-234.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Cho, H.-J. (2013). Analysis of the Questions about Hispanic Culture in the Spanish Section of the CSAT, *The Korean Journal of Hispanic Studies*, 6(2), 1-27.
- Cho, H.-R. (2004). Korean Language Cul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2, 193-210.
-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16802fc1bf>.
- Han, S.-G. (2008). Evaluating Cultural Literacy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or the Beginning Learners, *Korean Language Research*, 22, 391-423.
- Han, S.-M. (2008). Test of Cultural Competence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ocusing on Speech tes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5:1, 83-111.
- Jee, H. (2004). The Introduction of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into Korean Assessment, *Bilingual Research*, 26, 355-569.
- Kim, Ch.-W. (2007). Cultural Literacy Test i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8-2, 81-114.
- Kim, D. H. (2003).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Culture,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12, 157-180.
- Kim, E.-J. (2012). Redéfinition et analyse des types de « lexique à la culture » pour développe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41, 29-55.
- Kim, O.-S. (2011). Inhalte der interkulturellen kommunikativen Kompetenz und ihre Evaluation,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orea*, 28, 5-29.
- Kim, Y. (2012). A study on the teaching practices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in Korea, *Sungshin Humanities Research*, 30, 199-218.
- Kwon, O. H. (2003). 'Culture' in a communicative-orient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schools,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12, 247-274.
- Lee, M.-H. (2004). Teaching Korean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A teaching plan that considers integrating aspect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culture educ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1), 143-163.
- Lee, M. (2013). Analyse der Prüfungsaufgaben für Kultur der Suneung-Prüfung Deutsch I,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62, 21-43.
- Moon, J.-H. (2016). Study on Chinese culture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focusing on learners of Chinese in a non Chinese-speaking environment, *China and Sinology*, (30), 133-151.

- Park, H., & Kang, M. (2019). Analysis of Question Types in Second Foreign Language SNULT as a Language Testing Tool - Focusing on German and Japanese Test, *Language Research*, 55(S), 93-114.
- Park, J.-E. (2012). Incorporating Culture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Case of the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U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9(2), 49-73.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018). *SNULT Chinese Vol. 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in appear). *SNULT French Vol. 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ong, Y. (2015). Teaching Culture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Development of Spanish Learners, *Revista Iberoamericana*, 26.3, 205-234.
- Song, Y. (2016). A Didactic Proposal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 University Spanish Class according to an Action-Oriented Approac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1-27.